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4월 26일 (제79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고독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고독에 죽는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이는 외로움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도, 쓸쓸함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고독하다. 고독(孤獨)이 아니라 고독(高獨)이다. 홀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의 외로움이 있다. 나는 그 고독을 즐긴다. 내가 고독을 사랑하고 즐기는 이유는, 고독 중에서 마음껏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상상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이루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을 그린다. 그리고 결정할 일과 결단할 일을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고독은 나에게 알찬 시간이며, 친구이다. 또한 나는 성경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섭렵한다. 책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많은 위인들을 친구 삼는다.

고독 없이 창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랬을까? 위대한 자들은 대부분 고독한 자들이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으며, 요셉이 그랬다. 모세 역시 고독 속에서 사명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홀로 기도하셨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더러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 자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고독을 즐기라고.

고독은 나만의 공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오롯이 마주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된다. 더욱이는 주님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응접실이 될 수 있다.

고독한가? 이 시간을 알차게 채워라. 그것이 고독을 물리치는 길이고, 훗날 고독하지 않게 되는 길이다.

왜 기도원에 올라왔는가?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던 지난 20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춘계산상집회가 나흘 동안 열렸다. 휴가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넘쳤다. 푸릇해진 산과 철쭉이 만개한 동산은 모처럼의 만남을 기뻐했다.

첫날, 단에 오르신 총회장 목사님은 기도원에 올라온 목적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하셨다.

“여러분은 왜 기도원에 왔습니까? 집안 살림을 뒤로 하고, 더러는 월차를 내고 왜 이 기도원에 왔습니까? 여기에 온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 답했고(느2:4~8), 금식한 에스더에게 왕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했을 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7:1~3) 라고 답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단신인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산을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기도원에 올라왔느냐?’고 물으실 것인데, 그 때 머뭇거리지 말고 진실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취직시켜 주세요.’,

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여리고 같은 문제도, 홍해 같은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 늘 세계교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는 기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낙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 부산교회 이윤희 장로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그 분은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목사님과 같이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싶



2015 춘계산상집회(4월 20일 ~ 23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경 바다매오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는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답하여 눈이 밝아졌습니다(막10:51).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기도한 느헤미야의 안색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집회에 갔을 때 학교에서 봉사한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치킨을 원한다고 해서 치킨을 사다 줬습니다. 저도 그럴진대 하나님은 더욱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

다는 꿈을 가지고 하루 4~5시간씩 기도한다고 한다. 그의 확실한 목적은 집회 첫날 이루어졌다. 목사님은 그에게 귀신을 쫓게 했다. 총구가 잘 뚫인 총알은 잘 나가는 법, 이 장로가 병든 자를 인수하니 귀신이 즉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목사님은 예배 후 병든 자를 단에 올리고 일일이 인수해주셨고, 귀신들이 요동하며 쫓겨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춘계산상집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이 쏟아지는 시간이었다. 집회를 위해 수고해준 기도원 식구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귀신을 쫓아내는 꿈을 이룬 부산교회 이윤희 장로



우리의 영·혼·육을 살피우는 기도원 산상집회



나면서 귀머거리, 병어린 여인이 말하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1~15)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3~24).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예배 서두에 장로님들이 꼭 낭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매번 낭독할까요? 대중 예배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물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가문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어떤 기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아마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초대받은 순간부터 청와대에 갈 때까지 온통 그것 때문에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무리해서라도 좋은 옷을 살 것이고, 얼굴 마사지도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대통령에게 선물도 준비하겠지요. 그리고 아마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귀담아들을 것이며, 대통령의 말마다 동의하는 말과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드시고,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당신은 과연 어떻게습니까? 요즘 예배 실태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무슨 바람 쐬러 가는 차림새로 마지막이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 무

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네가 대우한대로 나도 너를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일의 명칭이 지난 백 년 동안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백 년 전에는 ‘거룩한 안식일(holy sabbath)’이라고 불렀는데, 약 60년 전부터는 ‘안식일(sabbath)’, 약 30년 전부터는 ‘일요일(sunday)’, 지금은 보통 ‘주말’(week-end)라 부릅니다. 미국인들의 신앙의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이 ‘하나님의 날’에서 휴식의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배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예배시간이 길면 성도가 떨어질까 간단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바쁜 세상에 긴 예배가 대수냐, 얼른 예배드리고 갈 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을 만났는데 바쁘니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악수나 하고 헤어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까? 왕이라서요? 아닙니다. 그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성전에 가서 그냥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번제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는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사 그에게 “내가 무엇을 줄꼬?”하고 물으셨고, 그에게 물질

의 축복은 물론이고, 장수와 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배출한 유명인사 네 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이고, 또 한사람은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창업자인 보잉입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발명가인 매콜드이며, 마지막 한 사람은 보잉의 동지이자 협력자인 호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모두 같은 교회, 한 선생님에게 배운 자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오직 예배를 잘 드리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십계명 중에 ‘주일에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예

배시간안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킨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공예배에 빠진 사람들이 입을 맞춘 듯 하는 말이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인생에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즉 예배드리는 날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20:11).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칠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출16:27). 제 칠일은 인간이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칠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스럽게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말1:7).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후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

매일 거울을 보고 다듬듯 신앙의 거울 성경을 보라

셨습니다. 당신이 간신히 교회 뜰이나 밭고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림과 같고, 당신이 세상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다 예배에 늦게 참석하는 것은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현물함과 같습니다. 그런 당신에게서도 하나님은 돌아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각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 먼저 나가 기다리듯, 신랑 예수를 만나러 가는 일에 늦지 맙시다. 둘째, 깨끗한 차림으로 교회에 갑시다. 옷은 곧 마음입니다. 새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하나님을 뵙시다. 셋째, 찬송을 할 때도 열심히 진정으로 합시다. 유행가 부르듯 하지 말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니 정성껏 부르십시오(히13:15). 넷째,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집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힘듭니다. 교회에 왔을 때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받읍시다. 다섯째, 말씀도 잘 들읍시다.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섯째, 헌금은 미리 준비하십시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일곱째, 축도는 꼭 받고 나갑시다. 축도를 하면 벌써 버스 탈 일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외식하는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쉽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시간에도 묵념을 하는 것처럼 눈만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손뼉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해야 마땅하건만 금봉어처럼 눈만 뿔뿔뿔 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람하듯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를 내듯, 선심이나 쓰듯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헌금주머니에 넣습니다. 자신은 예배 드렸다고 자위하겠지요. 교회 출석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말1:10).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허기진 분이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스크린과 같은 나

영화 필름 속에는 별의별 그림과 장면이 다 들어있지만 필름 자체만으로는 그 속의 그림을 볼 수가 없고, 그 필름을 영사기에 넣어서 강력한 빛으로 스크린 위에 비칠 때, 비로소 그 그림과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영화 필름 속에 담겨있는 것으로 비한다면 성령은 빛이요, 우리의 몸은 스크린과 같은 역할로 생각할 수 있다. 필름과 빛과 스크린, 이 세가지중 어느 한 가지만 없어도 그림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의 사진은 2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 효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대로 그림 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7).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내게 아무 관계가 없는 한낱 옛날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스크린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여기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림과 장면으로 비쳐질 때 은사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 가치 없는 하나의 형질 쪼갠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비쳐질 때, 원수 마귀 귀신들은 도망가게 된다. 그러므로 은사나 능력이란 우리 몸에 비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장면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교만, 음란, 험기, 사치 같은 것들이 내게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그림을 비쳐주고 있는 것이다. 교회도 하나의 커다란 스크린과 같은 것인데, 성령의 빛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진이 비쳐

지지 않는다. 누가보아도 2천 년 전에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교회라는 대형 스크린위에 비쳐질 때, 그 교회는 생명이 있으며 부흥발전하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생명이 없고 수근 수근하며 분쟁과 외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나타내주신 그리스도의 활동사진이 그대로 나타나야만 한다. 예수께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고, 질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으니 교회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것도 하리니”(요14:12).

나와 우리의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야만 한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고 방언하고 신유를 행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막16:17). 즉 하늘에서 영화필름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 성령으로 우리의 스크린 위에 활동사진으로 나타내라는 말씀이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은사를 나타내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고 가르쳐 주셨다.

부르짖는 방언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발하는 배터리 충전이다. 그리하여 약속을 붙잡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활동사 진처럼 비취게 하라!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암소 아홉 마리의 교훈

의료봉사를 위해 아프리카 외진 마을에 들어간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타지에 나가 공부를 하고 들어온 청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풍습이 있는데, 결혼 전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가에 가서 청혼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붓감은 암소 세 마리, 중간정도는 암소 두 마리, 보통은 암소 한 마리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려 암소 아홉 마리를 끌고 처가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처녀인지 궁금하여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향한 집은 허름한 집이었고, 처녀는 키만 큰 불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상황까지만 목격하고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후 다시 그 마을을 찾은 의사는 그 청년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지로 성공해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소개하는데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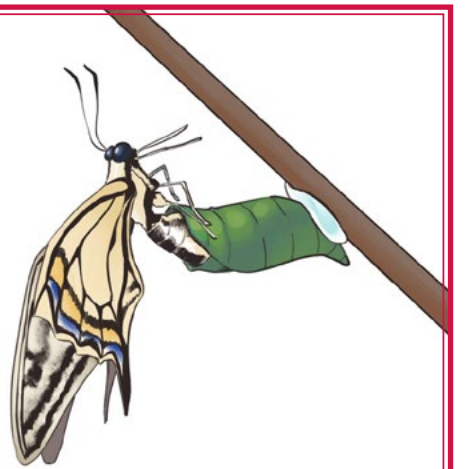
의사는 문득 과거 청년이 암소 아홉 마리를 끌고 처가에 간 기억이 났습니다. 의사는 ‘그 때 그 여인은 불품이 없었는데, 다른 여인과 결혼한 건가?’ 하고 생각하는 찰나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암소 아홉 마리로 청혼했던 여인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아내는 당시 가난한 집에 키만 큰 처녀였지요. 우리 마을에선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의 자존심이지요. 저는 아내가 평생 두세 마리를 받은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 후 아내가 암소 아홉 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내는 공부하고, 자신을 가꿔서 지금의 격조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중심편집실

축복은 고난 뒤에 온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승리하는 삶::



귀를 기울이세요

재작년 여름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저는 지금까지 총 4번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좁은 통로에서 백미러를 보는 요령이 미숙하여 차량 옆면을 벽에 긁힌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차만 피해를 입은 것이니까 다행이었지요. 두 번째는 앞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들어오는 빨간 불을 보지 못해서 앞에 있던 차를 뒤에서 살짝 부딪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좌회전을 할 때 도로에 그려진 정지선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바람에 마주 오던 택시 옆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쓰고 벌금 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금요일집회가 끝나고 주차장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 앞에 가던 차량 두 대와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드렸기에 한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의 사고를 겪고 나니, 이제는 운전할 때 정말 조심조심하며 방어운전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백미러도 사전에 미리 조정하고, 항상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다니며, 정지선이 있을 땐 감속하거나 일단 멈추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죠. 교통사고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한편으로 ‘처음부터 조심히 운전할 줄 아는 후회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천국이 라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괜히 방심하다 사고 쳐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안전운전 하세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섬세한 하나님

‘색 안에 건강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컬러 푸드’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색깔의 자연식품 안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서로 다른 성분이 있다. 필자는 과거 ‘컬러 푸드’를 방송 취재하며 만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감사했다.

‘컬러 푸드’는 레드, 오렌지, 옐로우, 화이트, 퍼플, 블랙, 그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추, 토마토 등의 레드 푸드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있어 항산화 효과 및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호박, 바나나 등의 옐로우 푸드에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항암, 항바 이러스, 항노화 효과를 한다. 양파, 무, 마늘 등의 핑거나 알싸한 맛의 화이트 푸드

에는 ‘안토크산틴’ 성분이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해 유해물질을 체외로 방출시키며, 검은콩, 다시마, 블루베리 등의 블랙 & 퍼플 푸드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면역력 증가와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많이 먹는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그린 푸드에는 ‘엽록소(글로로필)’ 성분이 풍부해 피로회복 및 원기회복에 탁월하다. 저마다 다른 색깔의 다양한 식품을 일일이 기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색깔의 물감으로 식품들을 창조하셨나보다. 이런 작은 미물도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떨까?

간장, 심장 등의 오장과 쓸개, 위 등의 육부, 뼈 206개, 근육 600여개, 관절 100여

개, 46조마다 몸의 한 바퀴를 꼭 돌아야 하는 혈액, 이 혈액을 매일 300리터 씩 몸구석구석에 퍼 나르는 심장, 몸속 혈관 길이의 총 합은 10만km(지구 세 바퀴 도는 거리), 뇌의 신경 세포수 1,000억 개, 4주마다 피부는 새 피부로 바뀌고, 100개의 땀구멍, 30개의 열감지기와 2개의 냉감지기, 10만개의 머리카락, 수면 3만개, 잔털 30만개, 하루 호흡수는 2만 번, 들숨과 날숨의 공기량은 8000리터, 코와 혀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와 맛을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인격’까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고인물은 썩는다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찾은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이번에는 서울과 인천 교회 네 분의 장로님들과 동행하는 여정이였다. 밤 비행기로 출발하여 막탄(Mactan) 세부 공항에 도착하니 새벽 1시다. 유상진 목사와 마닐라(Manila)에서 온 신민호 목사의 영접을 받고 숙소로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넘었다. 비행시간이 짧고 시차가 없다 해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야 할 늦은 시간임은 분명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목사님은 우리 일행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미 영접이 끝나 불이 꺼진 호텔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먼저 하나님께 도착 보고를 드렸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것은 목사님과 동행하며 늘 목도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통했던 역사는 오늘의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튿날, 장로님들과 함께 집회 장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돌아보았다. 젊은 일꾼들이 모여 바닥을 물청소하고 의자를 나르는 등 준비가 한창이였다. 목사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며 '비록 현재 삶이 가난하다

고 꿈마저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셨다. 꿈과 믿음을 키워 필리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로 성장해가길 바라며, 게임이나 오락, 연애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이가 될 것을 촉구하셨다. '오늘의 계란을 먹어치우지 말고 내일의 닭을 키우라'는 말씀에 모인 젊은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이였다.

목사님은 작업을 마친 젊은이들을 모아 놓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으셨다. 머뭇머뭇하던 중 한 청년이 '치킨'이라고 외치자 모두 입을 모아 치킨을 원한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즉시 장로님들에게 당장 가서 치킨을 사다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음식이 도착하자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기로 내가 장로님들에게 사다주라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앞에 치킨이 와있는 것을 보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에 명하여, 사람들을 들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목사님은 점심식사 후, 저녁집회를 위한

기도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한 꿈을 구했다고 했다. 큰 호수와 작은 호수가 보이는데 그 물이 모두 썩어있었다. 진땀을 흘리며 혼자 그 물을 모두 퍼내니 생수가 솟기 시작했다. 큰 호수는 필리핀이었고, 작은 호수는 세부였다. 이미 퍼낸 물은 걸러서 맑게 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깨보니 꿈이였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필리핀으로 보내신 뜻이 분명해졌다. 1950년대만 해도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기술지원을 할 만큼 잘나가던 때가 있었다. 스페인(Spain)의 오랜 식민통치 아래 가톨릭을 국교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가 마리아를 섬기며 우상단지를 만들어놓고 그릇된 신앙에 빠져 썩어버린 것이다. 멕시코(Mexico)를 비롯한 남미국가들처럼 이미 가톨릭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기에 지금까지 고착되어버린 썩은 신앙을 걷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생수, 곧 필리핀의 젊은 영혼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다. 이에 목사님은 3자 통역(영어, 세부어)으로 진행된 첫날 집회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그 원칙을 자세히 가르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실 인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을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고인 물이 썩듯 고착되고 타성에 젖어버린 썩은 신앙으로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는 부패하여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썩은 신앙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혁신이 없이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은 정말 혼신을 다하여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외치고 또 외치셨다. 바로 잃어버린 양 필리핀을 향하여 통탄하시는 성령의 애타는 탄식이였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필리핀 세부 집회 광경



필리핀 세부 지역 판자촌



세부예수중심교회 청년리더들과 함께

:: 교단소식 ::

육체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장애교우 초청잔치
(4월 21일, 장성 예수삼행기도원)

춘계산상집회 둘째 날인 21일 점심시간에 서울 장애인선교회가 주최한 '장애교우 초청잔치'가 기도원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 및 지교회 목사들, 그리고 우리교회의 장애우들이 참석하여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회장 목사님은 "육체적인 장애인이 장애인이다. 정신적인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경, 절름발이, 귀머거리 등 육체적 장애를 입은 자들의 친구였다. 장애를 가졌기에 세상으로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값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값을 받겠음이니라(눅14:12~14)는 말씀대로 나에게 되값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의 상이라고 말씀하셨다.

멀쩡한 사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심취해

서 사는 자보다 비록 다리는 절고, 눈은 보이지 않으며, 귀가 들리지 않는 자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장애우들이 더욱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우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유독 장애를 가진 자들이 많다. 다른 교회가 권력 있는 자를 자랑하고, 돈 있는 자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병들고 소외되고 장애를 입은 자들이 있음을 자랑한다.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장애교우 초청잔치를 베풀어준 서울 장애인 선교회에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이초석 목사
파나마 집회**

**4. 28(화) ~ 5. 7(목)
파나마시티**